

25.05.17.(토)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던킨 ·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정책제안 ... “점주 생존권 보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한 제도개선 시급”

오늘(5/17), 09: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식 진행

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 및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와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관행 개선과 가맹점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명순 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장, 조철현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장을 비롯해 여러 가맹점주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본사 중심 일방적 운영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민병덕 위원장과 김남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가맹점주들은 SPC그룹 및 산하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 중인 해피포인트 제도와 상시 할인행사, 필수물품 거래방식 등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해피포인트 제도의 경우 적립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분담하면서도 사용내역이 가맹점주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 비판대상이 됐다.

송명순 회장은 “본사가 해피포인트를 광고나 판촉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점주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가 실질적 부담자인 점주에게 돌아오지 않는 구조도 문제”라고 말했다.

조철현 회장 또한 “연중 계속되는 할인행사는 사실상 강제참여에 가깝다” 며 “심지어 차기행사에 참여하면 이전 행사도 소급적용되며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 라고 비판했다.

물품거래 문제도 지적됐다. SPC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을 제공하면서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하고 있어, 점주 자금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민병덕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본사의 일방적인 수익구조가 아닌, 가맹점주의 안정된 생존과 상생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며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속도를 높여 나가고, 현장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추진에 적극 나설 것” 이라며 가맹점주들과의 협력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